

무뚝뚝한 모습 이제 그만...세계인에 미소를 보여주세요

U대회 등 국제행사 앞두고 '친절 시민, 1등 주민'

교통법규 위반·불법 현수막 근절 '클린도시 도약'

‘당신의 미소가 친절한 광주·전남입니다.’
광주·전남의 2015년은 ‘도약의 해’다. KTX가 돌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열고, 빛가람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오른다. 세계 대학생들의 울림이 울려 퍼지는 광주·전남(광주U대회)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지역발전의 분수령이 될만한 굵직한 일들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무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광주·전남의 미래는 달라진다.
세계 최고의 관광상품은 ‘친절’이라고 한다. 광주·전남 지역민 모두가 ‘친절대사’다. 내가 먼저 미소짓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자. “안녕하세요”
◇친절 시민...최고의 상품=지난 2008년 남편을 따라 광주로 내려온 서울 출신 김창희(37)씨는 광주 생활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집을 들고 택시를 탈 때면 택시기사들로부터 쏘아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고, 시민들에게 길을 물어볼 때면 손사래 치면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자주 접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 ‘광주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불친절하나’라는 의문마저 들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은 광주·전남 사람들이

진솔하고 정감이 있다는 걸 알게됐다.
김씨는 “광주·전남 사람들이 속 마음이 따뜻하지만 표현하는 방식과 어투가 조금 공격적이다. 그러다 보니 무심코 내뱉은 말에 외국인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된다. 많이 달라진 것지만, 국제 대회를 앞둔 지금 좀 더 속 마음을 드러내고 친절을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광주·전남은 무뚝뚝하고 배타적인 도시 이미지 탓에, 사실과 달리 방문객들에게 불친절한 도시로 오해를 받아왔다. KTX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광주U대회 개최 등으로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다.
지금 광주·전남의 도시 이미지를 바꾸어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친절이다. 광주·전남이 반드시 만들어야 할 무형의 상품이다. 광주전남 시민 모두가 ‘친절대사’로 나서 내가 먼저 미소짓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자.
김창희 광주U대회 조직위원장은 “광주U대회의 성공은 주인인 광주시민에게 달려있다”며 “먼저 인사하기 등 손님들 반갑게 맞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등 주민...교통문화, 확 바꾸자=부끄럽게도 광주·전남지역의 교통문화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국도교통부의 ‘2014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교통문화지수는 68.5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7위다. 이는 전년도(73.2점·17위)보다 4.7점 하락한 것으로, 전국 평균(76.7점)보다 8.2점이 낮다.
교통문화 수준이 낮다 보니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각각 24.1명과 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 21.5명(15위) ▲2013년 23.9명(17위) ▲2014년 24.1명(17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광주도 하위권이라는 마찬가지다. 광주의 교통문화지수는 지난 2013년 78.4점(10위), 2014년 80점(10위)로 하락했다. 광주가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점유율’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 점유율’ 부문이다. 광주는 두 부문에서 14위(51.6%)와 12위(15.2%)를 기록했다. 광주는 또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73.71%·12위), 안전띠 착용률(73.76%·12위)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서는 안심하고 운전하거나 걷기 힘들다는 의미다.
시·도민의 안전과 지역을 방문한 이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질서 준수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나부터 교통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클린 도시...함께 가꾸요=광주는 불법 주정차,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광주시는 1~3월 3개월간 불법 주정차 11만7761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만747건과 비교해 66%인 4만7014건이 증가했다. 문화전당이 있는 동구는 무인 카메라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 지점을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늘렸다.
불법 광고물 단속도 강화됐다. 서구는 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75장을 내건 A건설사에 과태료 43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B건설사에 90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로·인도의 불법 적치물과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형 노점상의 경우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가 앞이나 주택가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고 전자제품이나 가구, 페타이어 등 거리 적치물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 주정차는 견인을, 불법 현수막엔 과태료 폭탄을, 불법 노점상은 지속적인 단속을 펴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밝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실천수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김성호 호남미래포럼 공동대표(전 보건복지부장관)는 “밝고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친절 시민, 1등 주민운동’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작은 배려와 친절은 광주·전남을 찾는 손님에게 커다란 감동으로 남고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옆 도로에서 한 승합차가 맞은 편 도로에서 차량이 달려오는데도 불법 유턴을 하고 있다. 불법 유턴 등 교통질서 위반행위는 교통 안전 위협은 물론 도시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신안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인근 상인들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놓아둔 페타이어를 수거하고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광주 U대회 개막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창사 63주년
드물게처럼 피어나라

담양골 들꽃으로 피어난
金南田 회장 이시어라

님은 40여 년간 후진양성에
교육계 큰 별로 헌신하시어
꽃 중의 꽃이시어라

빛고을 향교에 몸담아
유림 활동에 진력하시며
조상의 미풍양속을 전하며
참 인간다운 인간을 양성하시오니

님의 큰 업적, 놀라운 사랑
길이길이 빛날 것이시어라.

회장 취임시 축사 발췌 / 시인 김동진


成均館儒道會 光州廣域市本部
社團法人 禮實本光州廣域市本部

第12代 會長團

會長	金南田
首席副會長	金重采
副會長	曹圭軫
副會長	朴相來
副會長	鄭弘
副會長	鄭淳祥
副會長	金玉男
副會長	姜奇述
副會長	金雄國
副會長	劉乙烈
副會長	朴二采
副會長	鄭奇鉉

室局長團

企劃室長	安圭春
總務局長	朱社健
組織局長	李炫浩
政經局長	金平夫
教化文化局長	鄭德鉉
事業局長	李永春
女性局長	徐聲禮
教育院長	朴鍾隸
倫理委員長	奇昊錫



會長 金南田
(雅號: 桐谷)

光州廣域市 南區 中央路 107번길3 Tel. : (062) 672-7410 FAX : (062) 672-6744 H·P : 010-3637-1099 E-mail : knj5541@naver.com